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7 주차 (16:1~11)

(2015년 10월 4일 - 2015년 10월 10일)

(제3권 37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0 월 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진다는 것은?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ούς ποι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ων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π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ὄ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고별사가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이 제자들, 나아가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죄에 빠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칸다리스 데테’(σκανδαλισθῆτε)로 ‘스칸다리조’(σκανδαλιζω)를 변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넘어지다, 죄를 범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잡한 헬라어 문법은 차치하고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에 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단어는 ‘가능성(possibility)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을 없애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만 꺼내면 박수치고 환영하며 따를 거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편하게 살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환란이 찾아올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능히 견디어 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둔다고도 하지 않으시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나의 욕

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이 둘 중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고난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배교를 경고하는 글이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16장에도 그런 배교를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서 배교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막연한 소망이 충족되지 않자 이내 교회를 떠나 버린 것이지요.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서 명문학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능력자를 아버지로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에게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넘어짐의 원인인 것입니다.

둘째, ‘회청거려 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죄란 회청거려 넘어지는 것이지 단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동사인 ‘하마르타노’(ἁμαρτάνω)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스칸다리조’(σκανδαλίζω)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발판이 불안해서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엉뚱한 곳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별사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머리 속을 마치 예수님이 뻘뻘 들여다 보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는 것도 너무 당황스런 일인데 거기에 더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까지 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이기에 그들은 반드시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을 기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공관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를 찬양하며 따랐습니다. 고진감래라고나 할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의기양양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뺨속 깊이 새겨진 세상적 세계관을 내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은 위험한 곳이라는 거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은 그 자체가 넘어진 상태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기대와 실제 결과가 다르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인지상정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마저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

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듯이 어찌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또한 자신이 따르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위장된 우상 말이지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십시오. 그 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자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란이 닥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 은사나 재물 등 좋은 것만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절대능력을 경험한 결과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라 생각하지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철썩같이 믿고 하나님이 늘 자기를 돌보아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돌아보면 늘 빈손뿐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교회의 핍박을 예언하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ούς ποι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ων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π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ἀ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첫 고난은 출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교란 그들이 속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교당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한 곳에 산다하더라도 공동체라는 의식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같은 집에 10년을 넘게 살아도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 이웃 중 누가 이사를 가고 누가 이사를 오는 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출교가 어떤 의미인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출교란 공동체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당시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결국 출교당한 자는 더 이상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7장 60절은 스테반의 설교와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스테반 집사의 순교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²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³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행 8:1-3).

이 핍박을 주도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사도가 되어 자신도 순교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당시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보수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1:13-14).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태동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교당하고 순교당한 일은 로마 제국의 주도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도한 일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토록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16:2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헌물을 드리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프로스페로’(προσφέρω)를 그냥 ‘섬기는’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갖다 바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공적으로 여겼다는 거지요. 이 말은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단에 빠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들로부터 비판을 듣거나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받는 핍박으로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더 나아가 자신들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과 굳게 믿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도그마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 독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허락했다고 믿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뿐 아니라 제대로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3절)

이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유대인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⁵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⁶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⁷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⁸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⁹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¹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¹¹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¹²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¹³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¹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4-14).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직도 유대인들 처럼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고 인간의 교훈으로 삼아 이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마음에 가득한 근심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ούς ποι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ων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 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π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ὄ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κ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언젠가 때가 되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반기 갈릴리 사역과 후반기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사실은 공생애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공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대략 2 주 정도에 불과하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물으시며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운명을 이야기 해주십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한 직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으십시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마 16:21).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소위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변화된 영광스런 모습을 보여 주신 후 잠시 가버나움에 들러 귀신들린 어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

이 고난을 당하여 죽고 삼일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17:22-23).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서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10:45).

이 말씀도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음을 들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끝 무렵이었습니다. 아시다시 피 이 말씀은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말다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기대와 흥분으로 매우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덩달아 신분이 화려하게 바뀌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막 10:28 참조). 이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일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희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하던 하찮은 일을 버린 셈이니까요. 갈릴리 변방의 이름없던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일이라면 그까짓 조그만 고깃배와 시골집 정도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 상태로는 받아들이기에 너무 무리였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반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신 뒤에야 비로소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한 리더쉽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였지 그렇게 무력하고 힘없는 양처럼 죽을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이런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게다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지식’은 일종의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현실입니다. 자신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십자가로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다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예수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앞으로 그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임 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하시니 이 말을 들은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뜻밖의 말씀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6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러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왔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없음을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근심은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근심은 누가 없애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에 평강이 찾아 오며 기쁨이 샘솟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 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가능한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나요? 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보혜사 성령님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ῶν πο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ας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도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ρι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ὄ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κ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7절을 읽으십시오.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인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사셨다면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사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들의 죄,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영원한 심판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원인은 분명 인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인간 측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해결하려면 죄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즉, 인간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지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모두 지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어떤 이가 안식일

을 어기면 매우 큰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사사건건 유대인들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해박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은 엄청나게 큰 죄였으니까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중죄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기에 그분은 인간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정한 세상의 법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⁴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⁴¹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⁴² 이렇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0-12).

인간의 일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어떠한 권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인간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 중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맡으신 사명은 죄인인 인간들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을 대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서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레처럼 하찮은 나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랬군!’하면서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항상 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총동원된 그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그저 배가 고프니 젖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하나님께 이기적인 것만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라며 이런 자기 모습을 당연시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화려한 예배당에서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얼마를 헌금하든, 얼마나 철저히 도덕적인 삶을 살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문을 똑똑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제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¹⁴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¹⁵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¹⁶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¹⁷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¹⁸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¹⁹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²⁰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²¹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²²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²³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²⁴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14-24).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지요.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가득 차올라 문을 박차고 나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과 능력이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이 당신 가운데 계셔서 당신을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하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지 않는 죄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ούς ποι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ας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도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ρι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ἀ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죄, 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어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단어를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유죄 판결을 받는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유죄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유죄 판결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이야기 하지도 않으셨고, 백성들 등을 쳐 이의를 갈취하는 세리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시지도 않았고, 안식 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종교적 의무의 불이행을 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인간의 행위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이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한다면 행위가 올바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완전해야의 인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율법 앞에서 서면 죄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세기 초 성 어거스틴과 논쟁을 한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선만 선택하고 악을 하나도 행치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인간이 판단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자체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 선악 기준을 알게 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 3:22-23).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선악기준을 자기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기준을 가져다 쓰는 것은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 스스로 정죄하고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율법이 내게 오는 순간 그것을 선악 기준 삼아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려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탐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서 욕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기준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의롭고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를 씁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벗은 사실을 깨달은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엮어서 자신을 가리려고 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내면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거룩하고 의롭게 보인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심성이 곱다,’ ‘심성이 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원래 착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이 착해서 벌레 한 마리 죽이지도 못하고, 거짓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려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은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고, 아직 미신에 매달리는 시골의 순박한 노부부들이 도시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이러한 착한 행위나 사람

들의 고운 심성을 기준으로 유죄 여부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죄’란 인간의 마음 상태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없음, 죄사함이란 이 세상에서 행한 악한 일들, 이 세상에서의 부도덕한 일들, 이 세상에서의 헛된 욕망들을 용서해주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지요. 하나님은 그사람이 저지른 살인죄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으십니다. 살인죄를 문제 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지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것이지요. 그가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를 하면 그는 더 이상 살인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지요. 물론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마음의 짐은 남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살인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 살인자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냄새가 폴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살인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것이지요.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나요? 아직도 당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애를 쓰는 무언가가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의에 대한 유죄 판결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ῶν πο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ας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도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ρι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ἀ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11 절을 읽으십시오. 오늘은 10 절 즉, ‘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 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듣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선문답에 가까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문맥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8 절의 “그가 온 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에 걸리는 말입니다. 결국 10 절은 ‘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이지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죄가 있으니 당연하지요. 하지만 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에 대해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참고로 앞선 9절에서 죄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라고 저희 즉, 세상을 주체로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 죄에 대한 것은 믿지 않은 세상의 문제이고 의에 대한 것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맞다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의’가 세워지는 과정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용서 받은 사실에 만족하며 신앙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

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 죄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단지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지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의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¹⁷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¹⁸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⁹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²⁰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벨기세택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히 6:17-20).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자 영원한 사건입니다. 일회적 사건을 통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고 믿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모두가 수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음으로 만들어진 의를 부활로 완성하여 유지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며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은 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에 관한 설명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의 사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만드신 그 ‘의’는 칼의 양날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만든 의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를 입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쌓아 놓은 의를 애지중지 하면서 그 의를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없을 겁니다. 그들은 굳이 예수님이 만드신 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이런 분들 중에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의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려 놓았다고 말하는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유죄라고 판결 내립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죄로 점철되어 어디에도 자신을 내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예수님의 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의 예를 들자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간음하다 현장범으로 붙잡혀 온 그 여인이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고 예수님의 의를 옷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쌓아 놓은 의나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 저지른 죄나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려 놓은 사람인가요? 당신의 죄를 내려 놓은 사람인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심판에 대한 유죄 판결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6:1~11)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σκανδαλισθῆτε.)
- (2절) 그들이 너희의 출교를 단행할 것이다 (ἀποσυναγωγῶν ποήσουσιν ὑμᾶς·)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너희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예배라 여길 것이다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ας ὑμᾶς δόξῃ 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
- (3절)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ταῦτα ποιήσου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οὐκ ἔγνωσαν τὸν πατέρα οὐδὲ ἐμέ.)
- (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언제든지 그때가 되면 (ἵνα ὅταν ἔλθῃ ἡ ὥρα αὐτῶν)
너희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μνημονεύητε αὐτῶν ὅτι ἐγὼ εἶπον ὑμῖ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도다 (Ταῦτα δὲ ὑμῖν ἐξ ἀρχῆς οὐκ εἶπο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ὅτι μεθ' ὑμῶν ἦμην.)
-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떠나간다 (Νῦν δὲ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ἐρωτᾷ με·)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ποῦ ὑπάγεις.)
- (6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ἀλλ' ὅτι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근심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차왔다 (ἡ λύπη περιλήρωκεν ὑμῶν τὴν καρδίαν.)

-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ἀλλ' ἐγὼ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συμφέρει ὑμῖν)
 그 결과 내가 떠나간다 (ἵνα ἐγὼ ἀπέλθω.)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ἐὰν γὰρ μὴ ἀπέλθω.)
 보혜사(옹호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ὁ παράκλητος οὐκ ἐλεύσ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그러나 만약 간다면 (ἐὰν δὲ πορευθῶ.)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πέμψω αὐτὸν πρὸς ὑμᾶς.)
- (8절) 그가 온 후에 (καὶ ἔλθὼν ἐκεῖνος)
 세상을 유죄 판결 할 것이다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καὶ περὶ κρίσεως.)
- (9절) 한편 죄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μὲν.)
 저희들이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 (ὅτι οὐ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ἐμέ.)
-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ικαιοσύνης δέ.)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ὅτ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ὑπάγω καὶ οὐκέτι θεωρεῖτέ με.)
-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περὶ δὲ κρίσεως.)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έκρι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은 심판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1 절은 8 절을 설명하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데 그 이유는 이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 볼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심판과 유죄 판결 (개역개정 성경은 '책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은 언뜻 보기에 비슷한 단어 또는 동의어처럼 들립니다. 이를 동의어로 본다면 예수님이 동어 반복의 오류를 범하신 게 되어 버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심판을 받아왔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케크리타이' (κέκριται)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 '크리노' (κρίνω)의 서술형, 현재완료시제, 3인칭 단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제를 완료형으로 사용하신 것은 이 세상 통치자(대표단수)가 과거부터 그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정죄되었고, 성령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죄를 정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일견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실체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제자들과 초대 교회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 통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제자들이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탄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모든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좁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지도자들이 정죄되어 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유죄 판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정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이미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단절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제우스의 벌을 받아 묵묵히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실제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그 율법을 자신들의 행위로 완성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율법에 매여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 절에서 14 절을 보겠습니다.

“4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¹¹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¹²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¹³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¹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3:10-14).

이처럼 율법을 자신의 의를 입증하는 도구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수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죄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 ‘과녁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표 지점과 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떨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그들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방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효력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러질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연습이었던 셈이지요. 그림자는 진짜가 오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림자를 진짜로 착각하여 진짜가 왔음에도 그 진짜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내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의롭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롭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

람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올바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자꾸만이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키 재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카운트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받은 모습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